

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제주	응시횟수	2
임용시험 준비시기	대학교 졸업 및 군 전역 이후	합격 준비기간	1년 10개월 (초수+재수)	시험준비 병행여부	초수 : 기간제 교사 병행 재수 : 공부 올인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7.67점 / 전공(교육과정) 62점 - 총 79.67점
최종 합격점수	1차 점수 79.67점 2차 점수 92.9점(실기 25 / 실연 29.53 / 면접 38.37) 총 점수 172.57
가산점	0점

● 합격수기 작성

1. 본인 소개

1) 임용 시험 준비 이전

- 지거국 미술대학 재학(2017~2020) / 특정 전공 없음(대입 시기에 동양화 입시 준비)
- 졸업 후 군 복무(2021~2022)

2) 초수(2023)

- 군 전역 후 기간제 교사 병행 공부 시작
- 수강강좌 : 교육학 - ㅏㅎ / 전공 - 위상미술
- 1차 성적 : 교육학 13 + 전공 40 → 53(제주 컷 -5.67)
- 1지망에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합격하여 2차 수업실연·면접까지 응시했으나 최탈

3) 재수(2024)

- 공부 올인
- 수강강좌 : 교육학 - 메인 사보ㅇ(풀커리) + 서브 ㅏㅈㅓ(개념 서적 참고)
전공 : 메인 위상미술(풀커리) + 서브 ㅏㅈ(이론 강의 수강)
- 1차 성적 : 교육학 17.67 + 전공 62 → 79.67(제주 컷 +7.67)
- 2차 성적 : 실기 25 + 실연 29.53 + 면접 38.37 → 92.9
- 총성적 : 172.57(제주 수석 합격)

4) 특성

- 장독립형 인지양식 : 공부할 때는 알지 못했으나, 돌이켜보니 혼자 분석하며 공부하는 것에 효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 쓰면서 공부하는 타입 : 무조건 펜으로 끄적이며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고,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백지쓰기를 할 때도 스마트펜을 활용하여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근육에도 뇌가 있다고 생각해서(머슬메모리)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시에 인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낮은 집중력 : 혼자 공부할 때는 1시간이 최대 집중시간이었습니다.

2. 1차 공부 방법

1) 초수 실패 요인

- 절대적인 공부 시간 및 공부량 부족
 - 복습 시간 부족, 이해·암기 빈약, 단권화·정리 미흡, 백지쓰기 X
- 군 장교로 2년간 복무한 후 전역하고, 경제활동을 잠시 멈추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초수때부터 기간제 교사 업무를 병행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개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생초수 상태에서 일 병행 공부를 했다는 것은 조금 오만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 업무를 병행하다보면 평일 공부는 많아야 3시간이고, 주말에도 해야 할 업무가 생기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며, 1차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에는 생기부 작성으로 인해 엄청 바빠져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초수 때 다른 수험생들보다 공부 시간 및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1지망에 공립학교를 피하고 사립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1차 성적으로 53점(컷 -5.67)을 받아 다행히 사립학교 1차 시험을 합격하였으나, 2차 수업실연·면접에서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 최종 탈락 후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이 시험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과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다음은 1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공부에 올인하고자 했습니다.

2) 직·인강 여부

- 상반기(1~6월) : 교육학 및 전공 - 제주에서 인강 수강
- 하반기(7~11월) : 교육학 - 인강 유지
 전공 - 현장 분위기 적응·실제 현장 등수 확인, 긴장감 유지를 위해 노량진 상경, 직강 수강

3) 스터디

- 1차 : 온라인 인증 스터디 / 2차 : 오프라인 대면 스터디, 전화 짝 스터디
- 상반기는 혼자 개념을 곱씹어보며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아서 오프라인 대면 스터디는 굳이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 3~4월 기출분석 온라인 인증 스터디를 하나 참여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한 주에 정해진 영역의 기출을 분석하고 각자 인증만 하는 방식의 스터디였습니다.
- 하반기에 노량진에 상경하고 직강에 출석하면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해보려고 위상팀 스터디 구하기에 신청하였으나, 전산 오류로 제 신청이 누락돼서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쪽 혼자하게 됐는데.. 원래 장독립형이라 그런지 혼자서도 할만했고, 결론적으로 대면 스터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 관계 등 시간 낭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 공부 패턴

- 월별 공부 시간

- 1~6월 : 월~토 순공 7~9시간, 일 휴식 - 총 40~45시간
- 7~8월 : 월~토 순공 9~10시간, 일 1~2시간 - 총 50~60시간
- 9~11월 : 월~토 순공 10~12시간, 일 5~6시간 - 총 60~75시간
- 공부 비중 : 초반 교육학10/전공90 ~ 후반 교육학 20(30)/전공80(70)

(저는 후반에 갈수록 교육학을 20(최대 30)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교육학 20, 전공 80 비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전공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 필수 루틴 : 공부 시작 전 1시간, 종료 전 1시간, 총 2시간 미술과 교육과정 암기 (반드시!!)

5) 교육학 : 17.67/20

- 1월 22일 시작~2월

- 교육학 강의 중 어떤 커리큘럼을 수강해야 할지 고민되어 선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갖고 있는 ㅈㅈㅈ 교육학 개념 서적(ㅈㅈㅈㅈ)을 참고하여 한 주에 한 영역씩, 총 5주간 빅 5 영역(교과~교심)을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념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영역별로 완성하면 1~2 시간정도 정리본을 천천히 읽어보며 복습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정리본은 추후 강의를 듣고, 모고를 풀면서 알게된 개념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단권화하는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 초수 때 공부한 교육학 베이스를 토대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더욱 천천히 차분히 읽고 이해한 후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덜 중요한 개념은 읽고 짧게 요약하여 정리하거나 과감히 넘어갔습니다.

- 예시 : 교육학 기초 정리본 中 교육과정 부분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발절차	교육목표 설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방향 제시 • 교육내용 선정·조직/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기준 제시 • 교육평가 기준 제시 • 교육활동 통제
			진술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성 :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 진술 • 포괄성 : 학습자의 폭넓은 행동특성 변화 포함 • 일관성 : 논리적 모순 없이 철학적 일관성 • 실현가능성 : 활동을 통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
			분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 개념, 원리 등을 기억·암기 • 이해 :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 번역, 추론 • 적용 :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태에 적용 (문제해결능력) • 분석 : 자료를 하위요소로 분해, 관계 분석 (자료의 사실과 가설 구분) • 종합 : 부분을 전체로 재구성 (자신만의 의사전달 방식) • 평가 : 가치판단, 비평 • 감수 : 자기에 주의, 관심
		교육내용 선정·조직	정의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 : 자기에 관심+선호, 만족 • 가치화 : 자기에 대한 가치를 행동으로 표현 • 조직화 : 가치의 개념화 (관단 기초) • 인격화 : 자신만의 인생철학, 가치관, 생활 양식
			심동적 영역	반사작용 - 기초운동 - 지각 능력 - 신체 능력 - 숙련된 운동 - 동작적 의사소통
			교육내용 선정 (타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의 원리 :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 기회 제공 • 만족의 원리 : 학습 활동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관심 기초 • 학습가능성의 원리 : 학습자 수준에서 학습 가능한 것 • 일 목표 다 경험의 원리 : 하나의 목표로 여러 경험 • 일 경험 다 성과의 원리 :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 결과(여러 학습목표) 도달 • 타당성·중요성·유용성·전이의 원리
교육내용 조직	수평적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 교육내용의 폭과 깊이 • 통합성 : 유사한 교육내용끼리 관련 (하나의 교과·단원) • 균형성 : 학습 경험 간의 균형 • 건전성 :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태도 		
수직적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성 : 동일한 교육내용 반복 • 계열성 : 교육내용의 수준을 높이며 폭과 깊이 더함 (교육 순서 결정) • 수직적 연계성 : 학습의 도착점과 다음 학습의 출발점이 맞물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큰 주제~세부 내용 순서로 저만의 지식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내용을 옮기지 않고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 3~4월

- 사보 커리를 선택하여 심화이론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7~8시간정도 배속으로 한 주치 인강을 모두 수강했습니다.
- 선택 동기는 수업 내용도 좋고 교수님께서 강의 내내 텐션이 엄청 높다고 들어서, 이왕 공부할 거 텐션 높은 강의를 따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텐션의 수업과 함께 밝은 미소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더욱 힘낼 수 있었고,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심화·지엽적인 내용도 함께 공부해야 해서 조금 버거웠지만 그만큼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좋은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인강을 수강한 날은 수강 후 바로 기존 정리본+심화이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추가 정리하며 단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 빈칸구조도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지식의 구조를 잡아보며 복습하였습니다.
- 다음 날은 단권화본을 한 영역씩 간단하게 회독하고, 사보 커리에서 제공받은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하였습니다. (이 복습은 성실히 하지 못하고 못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 3월부터 마지막 11월까지 각 강좌마다 모의고사 2회가 진행됩니다. 각 강좌를 수강할 때마다 제공 받은 모의고사를 시간 재서 풀고 꼼꼼히 첨삭까지 받았습니다. 제 답안의 문제점과 피드백에 대해 자세히 첨삭받을 수 있어 답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잘 받은 점수는 18점이었습니다.
- 5~6월
 - 기출분석 강의 시즌인데, 작년에 기출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여 수강하진 않았습니다.
 - 일주일 중 이틀에 걸쳐 8~10시간동안 1~4월까지 만든 단권화본을 1회독하고, 심화이론 강의에서 배운 청킹을 활용하여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 Big 5 영역 위주로 회독하였으며, 나머지 3영역은 기본 서적을 가볍게 훑어보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 시간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교육학 형성평가 문제로 인출해보며 복습하였습니다.
- 7~8월
 - 사보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하였습니다.
 -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제공받은 실전문제(단락 모의고사)를 시간 재서 모두 스스로 풀어본 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풀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헛갈려하고 어떤 점에서 사고하기 어려워하며, 어떤 것을 암기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메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오늘 풀었던 문제들을 개요만 작성해보며 복습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점검하였습니다.
 - 7·8월 모의고사 총 2번 또한 시간 재서 성실히 풀고, 꼼꼼히 첨삭받으면서 현재 내 실력과 위치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 단락 모의고사와 중간중간 빈칸구조도를 활용하여 충분히 인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학은 따로 백지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9~11월
 - 사보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하였습니다.
 - 매주 2회분의 모의고사를 이틀에 걸쳐서 제공받습니다. 모의고사를 시간 재서 먼저 풀어보고,

해설 강의와 질의응답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 강의 수강 후, 개요 작성과 해당 문제에 나온 개념을 회독하면서 복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에 풀었던 모의고사를 간단하게 개요 작성을 통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 교육학 모고를 풀지 않는 날은 2시간씩 할애하여 7~8월에 제공된 실전문제를 활용하여 3·3·4 세트를 돌렸습니다.

(예시 : 월 - 교과 3문제, 교방 3문제, 교과1·교방1·교평1·교행1

화 - 교육학 모고 4회 풀기 / 3회 인강 수강 + 복습 / 1회 개요 쓰며 간단 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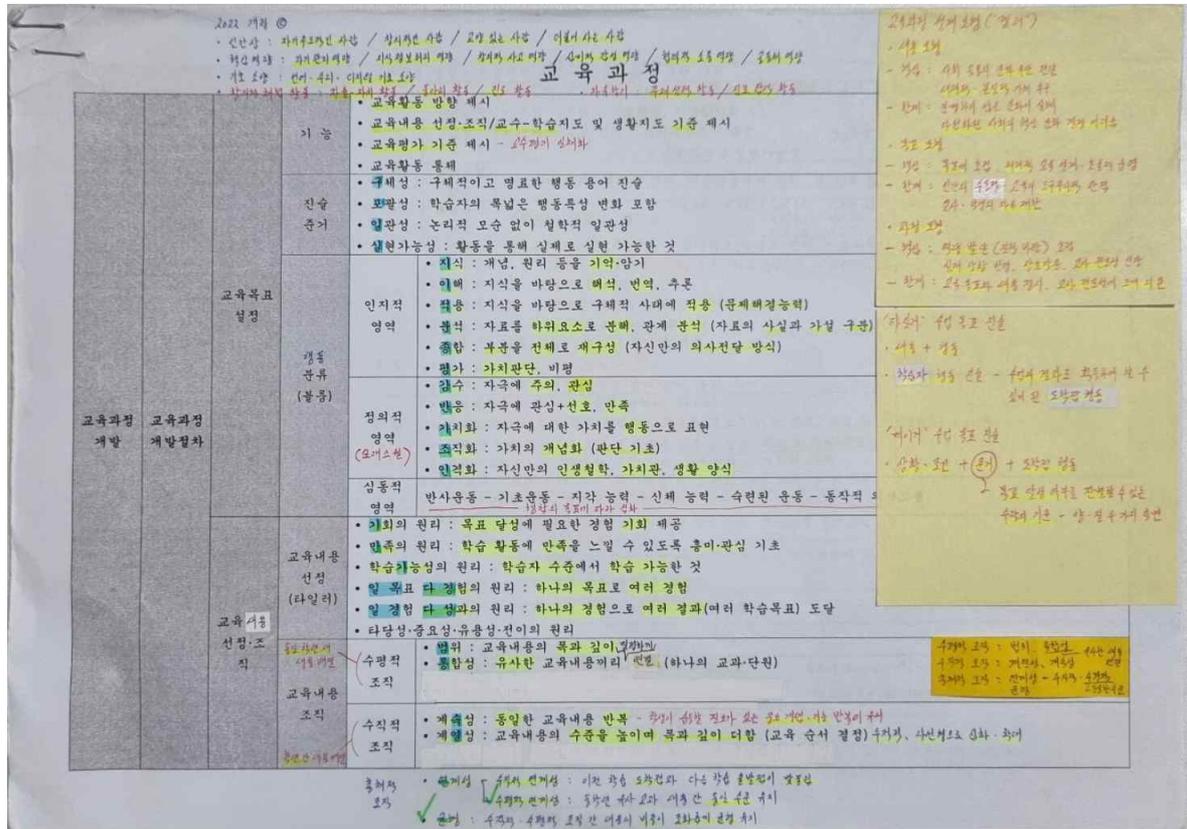
수 - 교육학 모고 4회 풀기 / 4회 인강 수강 + 복습 / 2회 개요 쓰며 간단 복습

목 - 교평 3문제, 교행 3문제, 교심1·교과1·교방1·교평1

금 - 교심 3문제, 교과 3문제, 교행1·교심1·교과1·교방1)

- 단권화본 또한 일주일에 전 영역 1회독씩 했으며, 시험 2~3주 전에는 이틀에 걸쳐 1회독씩, 1주 전은 하루에 전 영역 회독했습니다. 하였습니다. 회독 주기는 시험이 다가올 수록 더욱 빠르게 하여, 끝에는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정말 빠르게 회독해주어야 합니다.

- 예시 : 교육학 최종 단권화본 中 교육과정 부분



여백 공간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추가 개념을 정리하여 단권화했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며 핵심 키워드를 회독했고, 파란 형광펜 밑줄로 청킹 만들고 암기했습니다.

파란색은 심화이론 개념, 빨간색은 문제풀이·모의고사에서 배운 개념으로, 따로 색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빠지는 개념 없이 꼼꼼히 단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정리본 단권화 과정은 시험 전 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꾸준한 정리본 회독을 통해 개념에 익숙해지고 추후 문제풀이 인

출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시험 당일 가져갈 자료

- 수업 커리에서 제공해준 중요도 점검표를 참고하여 단권화본에 꼭 다시 봐야할 개념을 체크했습니다. 마지막에 본 개념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단권화본만 들고 가서 체크한 개념들만 간단하면서도 꼼꼼하게 훑어보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6) 전공 : 62/80

- 1월 22일 시작~2월

-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위상미술 연간 쌤팩 신청하여 기본이론 강의부터 수강했습니다.

- 최종 발표를 기다리느라 듣지 못한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 일주일에 이틀간 몰아서 배속으로 하루에 5~7시간동안 들어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초수 때 만든 요약 정리본을 활용하여 꼭 1시간씩 배운 내용 범위를 훑어보며 복습하였습니다.

- 강의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시거나 판서해주시는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며 수강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강의 시간에 정리한 내용과 초수 때 만든 요약 정리본 중 중요한 내용만 기본서에 단권화 작업을 진행하며 복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단권화 작업은 기본서에 진행했습니다. 단권화 작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고, 생각을 다시 정리하여 전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천천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상미술 기본서 자체가 레이아웃이 잘되었지만, 제가 좀 더 읽기 편하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복된 내용이라도 한번 더 구조화하여 정리한 후 단권화했습니다.

- 한 기본서에 이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동시에 초수때 만든 요약 정리본을 활용하여 다른 기본서 내용 회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권의 미교론~표현4까지 강의를 듣는 시기에는 하권의 감상~서미사 내용이 정리된 요약본을 회독했고, 다음으로 하권의 감상~서미사까지 강의를 듣는 시기에는 상권의 미교론~표현4 내용이 정리된 요약본을 회독하며 모든 영역에 골고루 공부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 3~4월

- 위상미술 심화이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이 시점에서 타 강사 강의 수강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념에 대해 A강사는 a로 설명하고 B강사는 b로 설명하는데, a와 b를 모두 알게 된다면 해당 개념에 대해 a와 b를 활용하여 더 풍부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타 강사 강의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강사의 기출분석, 문풀, 모의고사까지 병행하여 함께 듣게 된다면 시간이 부족하여 한 커리에 집중하지 못하여 이도 저도 안될 거 같아서, 딱 개념 설명만 이뤄지는 기본이론 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 위상미술 심화이론 강의와 타 강사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한 후, 정리 내용을 모두 기본서에 꼼꼼히 단권화하였습니다. 또한 1~2월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골고루 공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강의 영역과 회독 영역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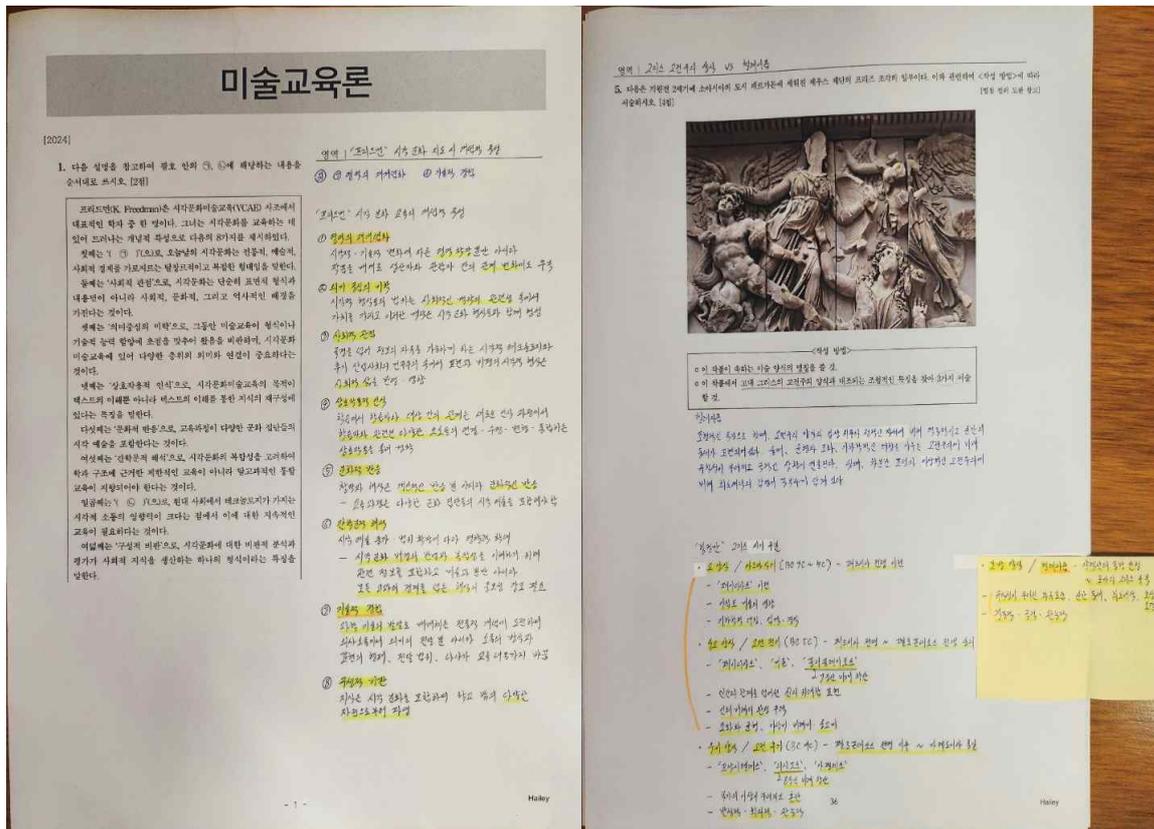
- 이때부터 제 공부 방법 중 핵심이 되는 백지쓰기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수 때부터 백지쓰기를 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 것도 없는 백지를 글로 뽁뽁하게 채워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어느 정도 구조화된 백지쓰기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단어의 정의와 개념을 가볍게 보지 않고, 백지쓰기를 할 때마다 단어를 채운 후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정의와 개념이 인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기출분석 온라인 인증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인증 오픈채팅 방장 선생님께서 14~24개년 기출을 영역별로 정리한 파일을 만들어주셔서 별도의 영역 정리 없이 바로 분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출분석 후에는 기본서 내용 중 기출된 개념은 따로 체크하여 회독할 때 어느 영역에서 몇년도에 기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위상미술에서 7~8월 기출분석 강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시험은 기출분석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혼자 일찍 기출을 분석하였습니다. 윤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나온만한 개념들은 거의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슬슬 기출 문제들이 다시 돌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올해 25년도 시험에서 기출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 기출분석은 각 문제의 답만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되거나 옆에 있는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고, 또 추후에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인지 분석하고 유추해보는 공부입니다. 물론 초수생들은 기본 개념이 다소 부족하여 이 시기에 이러한 기출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초수 때 공부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가능했던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초수생분들께서는 5~6월 문풀 강의까지 수강하시면서 기본 개념을 충분히 다지신 후에 7~8월 기출분석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기출분석 정리본 중 미교론, 서미사 부분



- 위상미술 공개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13등(백분위 91%)이라는 나름 만족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내 공부 방법이 틀리진 않았구나 생각하고 더욱 자신감있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 한번의 모의고사로 일희일비하여 자

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자신감을 갖되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면 좌절하지 말고 공부 방법에서 잘못된 점을 알고 바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5~6월

- 위상미술 문제풀이 강의 및 필독서·사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문제풀이 강의의 장점은 이론 공부만으로는 부족한 실전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시야를 넓혀줍니다. 아마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심화이론을 착실하게 수강했던 초수생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뽐뽐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문풀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답도 잘 안써지고, 쓴 답도 많이 틀리고, 알고 있었던 것도 실수로 틀려서 자존감도 낮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저도 초수때와 재수때 둘다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딪쳐보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있다면 장지연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 먼저 문제를 시간 재서 풀어본 후, 강의를 들으면서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강의를 다 듣고 답안지에 틀린 문제의 답안을 재작성해보며 복습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에서 배운 새로운 개념을 단권화하며 다시 복습했습니다. 단권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현타(?)가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단권화는 추후 빠른 회독에 도움이 되고, 모두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날은 제가 틀린 문제를 재작성한 답안, 단권화한 내용을 토대로 오답노트를 정리하며 복습했습니다. 이러한 오답노트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문풀과 모고 강의 모두 만들었으며, 하반기에 오답노트를 함께 회독하며 내가 어떤 문제에서 틀렸었고,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상기했습니다.

- 필독서·사전 강의는 24년도부터 윤진 교수님께서 위상팀에 합류하시게 되면서 신설된 강의입니다. 갓 신설된 강의지만 문풀 강의만큼 중요하고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상미술에서는 수강생들에게, 특히 초수생들에게는 필독서를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필독서를 보게 된다면 지역적인 부분만 파고들어 핵심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미술임용문제는 점점 더 발전하고 변두리 부분까지 출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상팀에서도 필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수강생들이 필독서를 읽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마저도 잘못 읽으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필독서·사전 강의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윤진 교수님께서 시중에 판매하는 필독서들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 짜집기해서 가르쳐주시는데, 기본·심화이론 수강으로는 부족했던 맥락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문풀과정에서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을 시원하게 뺨~뚫어주십니다.

- 필독서·사전 강의는 윤진 교수님의 판서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판서량으로 꺼려하는 수강생분들도 종종 보았던 거 같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들으면서 자주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교수님의 판서를 따라 정리하며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판서를 따라 써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곱씹어보며 정리할 수 있어 이해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끝나면 바로 기본서를 펴서 단권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과 판서를 보며 따라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단권화하고, 하루에 총 2번의 복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회독과 백지쓰기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인풋과 아웃풋을 진행했습니다.
- 6월 희소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현장 응시자 기준 총점(교육학+전공) 기준 백분위 97%라는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평소의 페이스와 평소 하던 공부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했습니다.
- 7~8월 / 9~11월
- 7~8월에는 노량진에 상경하여 위상미술 기출분석 강의 및 영역별 모고 강의를, 9~11월에는 실전 모고 및 파이널 모고를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 기출분석 강의는 3~4월에 미리 기출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정리한 덕분에 수강과 복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영역별 모고, 실전 모고, 파이널 모고 공부 방법을 5~6월 문풀 공부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강 가서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당일 답안 재작성 및 단권화, 다음 날 오답노트 작성입니다.
- 직강 등수는 항상 100명 중 10등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최저 11등, 최고 3등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저는 이 시기에 공부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슬럼프가 아니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반기때에 비해 뭔가 더 멍청해지고 뇌가 퇴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강의를 끝나고 장지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초중기에는 문제 취지에 맞게 잘 풀었는데, 요즘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집으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였는데, 해결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백지쓰기를 통해 기본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풀과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고 단권화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다양한 개념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지엽적인 부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정신차리고 다시 백지쓰기를 중심으로 기본기 다지기에 집중했고, 다시 원래 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예시 : 전공 최종 단권화본 中 미학 부분

1911년 1월 1일 (1911-1912)

문화적으로 명조의 행정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서양 문물의 전래는 근대화를 낳았으며, 외국의 제국주의 침략의 기회를 만들어 20세기에 들어서 정국은 폐망하였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옛 것을 답습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행하였고, 후계자는 서양화 기법이 수용되었다.

문화적으로 명조의 행정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서양 문물의 전래는 근대화를 낳았으며, 외국의 제국주의 침략의 기회를 만들어 20세기에 들어서 정국은 폐망하였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옛 것을 답습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행하였고, 후계자는 서양화 기법이 수용되었다.

문화적으로 명조의 행정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서양 문물의 전래는 근대화를 낳았으며, 외국의 제국주의 침략의 기회를 만들어 20세기에 들어서 정국은 폐망하였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옛 것을 답습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행하였고, 후계자는 서양화 기법이 수용되었다.

문화적으로 명조의 행정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서양 문물의 전래는 근대화를 낳았으며, 외국의 제국주의 침략의 기회를 만들어 20세기에 들어서 정국은 폐망하였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옛 것을 답습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행하였고, 후계자는 서양화 기법이 수용되었다.

3) 회화

① 초기 회화의 특징

② 남화 안배의 완성 시대를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이었다.

③ 초기를 대표하는 서양유용의 화가가 중심이 된 실경화풍의 삼인·사계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의 등장 속에서 초기 유행하였다.

④ 초기 회화의 특징

⑤ 산수화보다 화풍, 영묘 조에 반발한 양주파

⑥ 초기 회단의 특징

⑦ 산수화보다 화풍, 영묘 조에 반발한 양주파

산수화 (경치화)

· 산수화, '산수' + '화'

· 장려한 절제 기법 ('화법' 기법)

· 산수화 화가에게 화와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산수화 (경치화)

· 산수화, '산수' + '화'

· 장려한 절제 기법 ('화법' 기법)

· 산수화 화가에게 화와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산수화 (경치화)

· 산수화, '산수' + '화'

· 장려한 절제 기법 ('화법' 기법)

· 산수화 화가에게 화와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산수화 (경치화)

· 산수화, '산수' + '화'

· 장려한 절제 기법 ('화법' 기법)

· 산수화 화가에게 화와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산수화 화가 구분

- 예시 : 전공 최종 단권화본 중 서미사 인상~신인상 부분

1880년경 인상주의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등장한 미술 유행파

빛의 분리는 인상주의의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인상주의의 본능적, 직감적 도가 빛에만 지나치게 위배된 나머지 형태를 확실시한다는 점에 불만을 느끼고, 여기에 일일한 이론과 과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색채를 혼합하여 무수한 점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색채 혼합 등 인상주의의 기법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신인상주의자들의 경험주의적 사실주의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향, 즉 그렇게 고려되고 계획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계산된 효과가 예전, 지향 사조를 도입시켰다. **경향 '경외 자연' - 신인상적 경향**

신인상주의(Neo-Impressionism) (19c 후반 ~ 20c 초반)

1880년경 인상주의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등장한 미술 유행파

빛의 분리는 인상주의의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인상주의의 본능적, 직감적 도가 빛에만 지나치게 위배된 나머지 형태를 확실시한다는 점에 불만을 느끼고, 여기에 일일한 이론과 과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색채를 혼합하여 무수한 점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색채 혼합 등 인상주의의 기법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신인상주의자들의 경험주의적 사실주의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향, 즉 그렇게 고려되고 계획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계산된 효과가 예전, 지향 사조를 도입시켰다. **경향 '경외 자연' - 신인상적 경향**

영국 화가 J.M.W. 터너의 작품 '비, 안개, 그리고 대영철도' (1844년)

영국 화가 J.M.W. 터너의 작품 '비, 안개, 그리고 대영철도' (1844년)

영국 화가 J.M.W. 터너의 작품 '비, 안개, 그리고 대영철도' (1844년)

영국 화가 J.M.W. 터너의 작품 '비, 안개, 그리고 대영철도' (1844년)

영국 화가 J.M.W. 터너의 작품 '비, 안개, 그리고 대영철도' (18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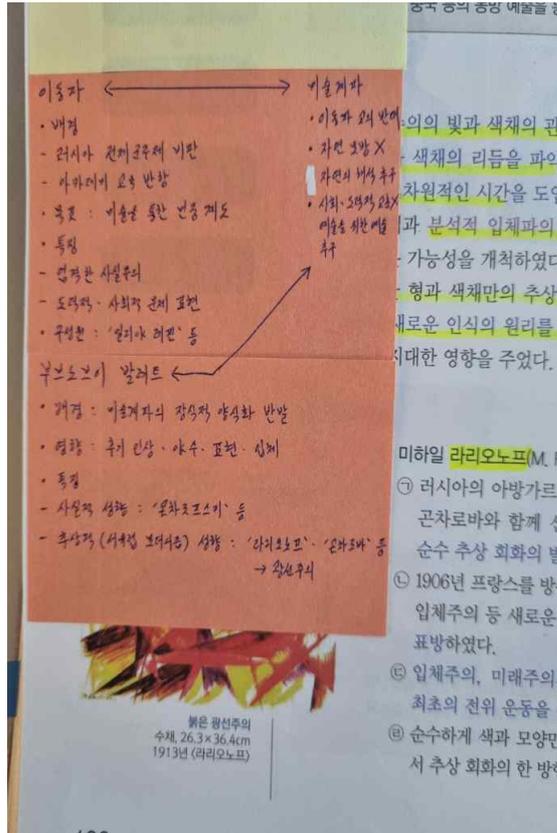
영국 화가 J.M.W. 터너의 작품 '비, 안개, 그리고 대영철도' (1844년)

위상미술 이론, 타 강사 이론, 문풀, 모고, 지엽적인 내용 등 다양한 정리 내용을 각기 다른

색깔펜과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으로 구분하여 단권화했습니다.

이쁘게 보여주기 위한 인스타용 공부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시간 낭비고 독이 됩니다.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러나 정성을 들여 배운 내용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권화 하다보면 이걸 언제 다 회독하고 암기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지만, 올바른 공부 방향으로 진행해왔다면 후반부에 갈수록 회독 속도는 빨라지고 전부 소화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좋은 예시 : 단권화본 중 깊고 지역적인 내용



서미사 중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은 광선주의, 절대주의, 구축주의입니다. 여기서 저는 문풀 및 모고 문제를 분석하고 단권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깊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탐색하여 정리하였는데.. 물론 계속해서 발전하는 문제 경향에 따라 이런 지역적인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단권화에 정리해둬서 함께 회독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기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가져갈 자료

- 백지쓰기 및 문풀~모고 과정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많이 헛갈려하고 틀리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내가 어디에 약한지 스스로 점검하곤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작성해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내가 약한 부분만 단권화본에 체크해두고 시험장에 가서 그 부분만 보았습니다.

2. 2차 공부 방법

1) 실기평가 : 25/30

• 소묘 : 인물소묘

- 2017년 대학교 1학년 때 전공필수로 들었던 소묘 수업을 마지막으로 2024년까지 7년간 소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포기하면 죽

도 밥도 안되니 재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 실기학원은 노량진 c트를 다녔습니다. c트의 장점은 입시가 아닌 입사를 목표로 기본에 충실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젤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자세부터 바른 형태와 비례를 잡는 방법 등 기본 중에 기본부터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 실기문제는 그려야 할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 모든 것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밀도에 치중되어 그림이 새까맣게 타 버리고 기본적인 인물의 형태와 비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원장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기본부터 착실히 따라갔습니다.

- 예시 : 인물소묘 평소작



- 예시 : 빠르게 형태, 비례를 잡기 위한 크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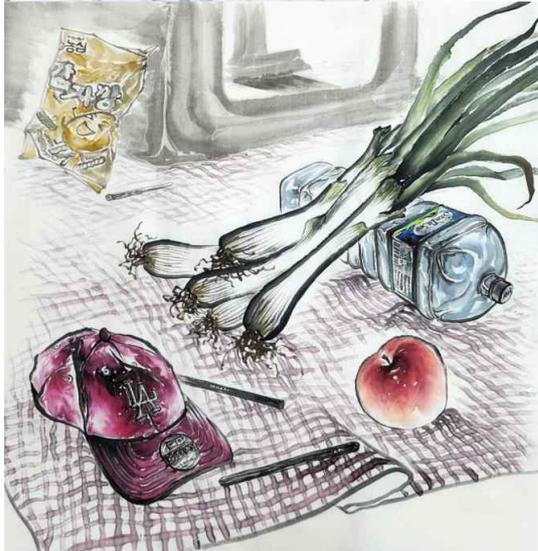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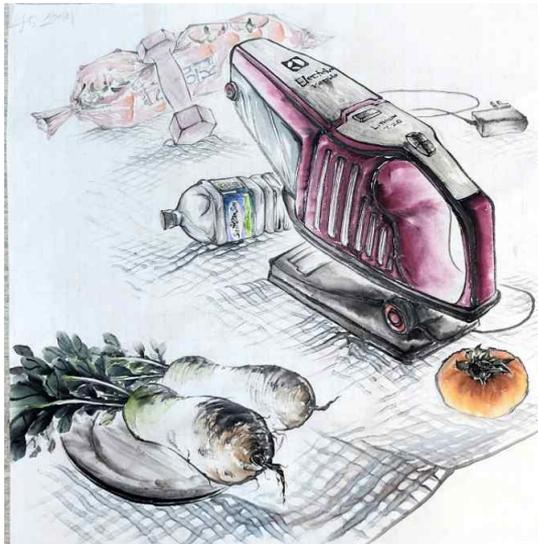
• 전공 : 정물수묵담채화

- 전공은 따로 없지만 고등학생때 한국화 입시로 대입을 준비해서 정물수묵담채화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화 또한 2020년 대학교 4학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공백이 있었으나, 소묘와 같은 재활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노량진에서 한국화를 다루는 학원을 찾기에는

쉽지 않았으나, 운 좋게도 cte에서 연결시켜준 화실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 제주 정물수채화·정물수묵담채화 문제는 한 테마를 주제로 출제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테마를 정해서 연습하기 보다는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한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대입 준비 시절에 했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필선 긋기와 농담 표현부터 시작하여 개체 연습, 구도 연습, 완성작까지 점진적인 단계로 다양한 정물과 구도를 연습하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혔습니다.

- 예시 : 정물수묵담채화 평소작



2) 수업실연 : 29.53/30

- 수업실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내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실연을 하는 15~20분만이라도 앞에 평가관분들을 돌맹이다라고 생각하고, 소심함에서 벗어나 할리우드 배우에 빙의되어 연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은 반드시 스테디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테디원들의 실연과 면접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내 실연과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 수업실연을 준비 또한 실전 연습을 무한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돌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문제를 잘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어줍니다. 그 후에 강사 모의문제와 교과서를 활용한 자체제작문제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비지도안 지역이었습니다. 실연 전에 항상 시간 재서 구상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몇 번 정도는 괜찮으나, 뒤로 갈수록 제시 시간에 구상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스럽게 구상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과도하게 한다면 실전 능력 향상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 대본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실연에 익숙하지 않아 미리 대본을 작성하고, 그것을 따라 읽으며 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구상지만을 참고하여 자연스러운 원맨 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은 독이 됩니다.

- 자기만의 수업 만능틀을 만들고, 연습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만능틀로 모든 수업에 적용하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터디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나, 적당히 걸러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드백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답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꾸준한 자기점검을 통해 자신의 실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합한 피드백만을 적절히 수용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심층면접 : 38.37/40

- 작년에 했던 사립 면접 준비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면접은 실기와 실연과는 달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ㅅㅅㅇㅅ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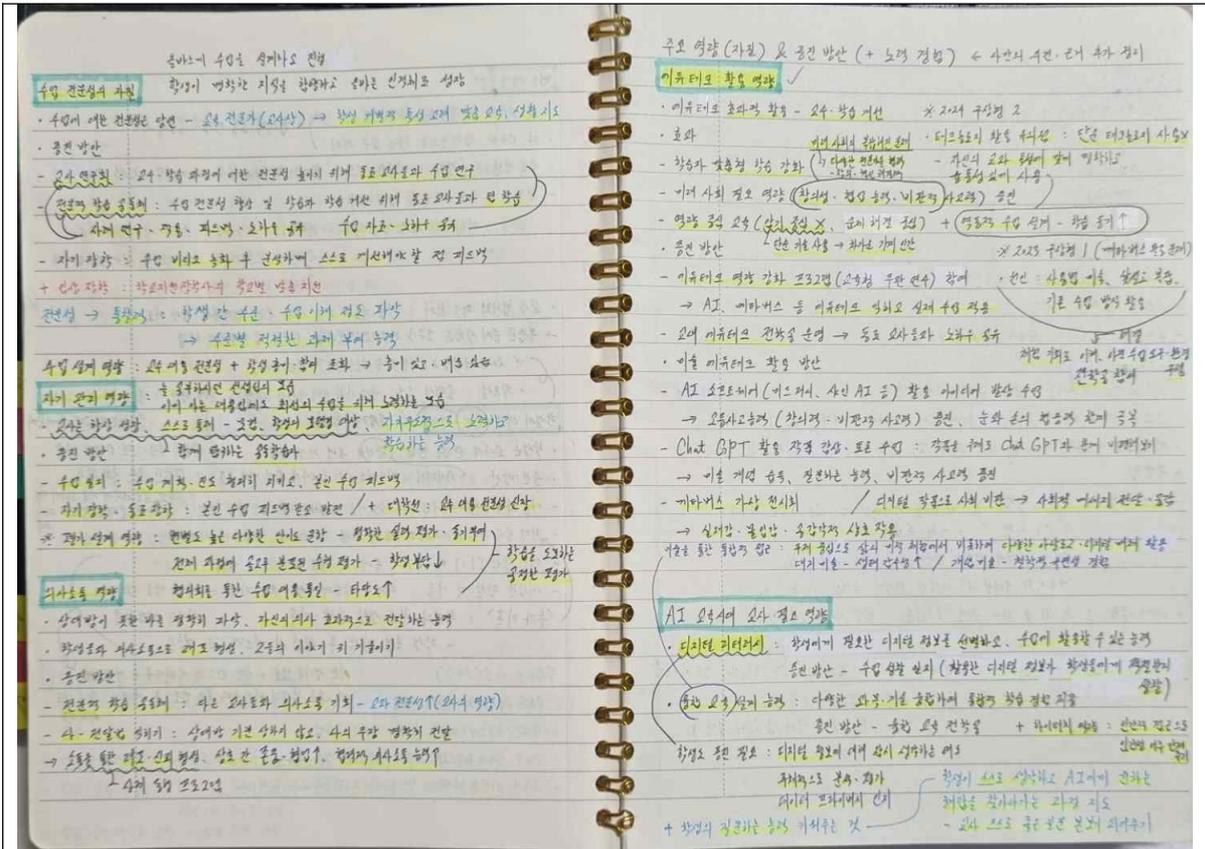
- 면접 답변을 구성하기 위한 키워드 단권화본을 만들었습니다. ㅅㅅㅇㅅ 면접서를 활용하여 기본 카테고리를 잡고, 행복한 교육, 교육청 시책, 면접 레시피 등 활용하여 내용을 풍부히 정리하였습니다.

- 초반에는 단권화본을 만들며 인풋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아웃풋을 위해서는 먼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원 면접 문제는 빈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인풋만 충분하다면 훨씬 아웃풋 연습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 중~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아웃풋에 집중하고, 끝에는 마찬가지로 무한 아웃풋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 면접 스터디에서 아웃풋을 진행할 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최대한 풍부하게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자기 답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답변에 대해 자세한 피드백 없이 그저 잘한다고만 한다면, 다른 스터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독이 됩니다.

- 예시 : 면접 키워드 단권화본 中 주요 역량 정리 부분



3. 마치며(당부말씀)

- 1) 합격사례 과의존 X (나만의 공부방법 찾기)
- 2) 합격할 공부는 '열심히'가 기본 베이스 (절대적 순공시간 필요, 요령 X)
- 3) 반드시 계획 세워 공부 (계획 없는 목적은 희망사항일 뿐)
- 4) 인스타용 공부 X (오리기, 붙이기, 색칠하기 = 독)
- 5) 그날 배운 것은 무조건 당일 복습 (내일은 없다!)
- 6) 미술과 교육과정 반드시 암기 (안하면 최소 -3점에서 시작)
- 7) 기본에 충실 (지엽적인 것에 빠지지 않기)
- 8) 모르거나 헛갈리면 질문 (혼자 헤매이며 찾는 것은 시간낭비)
- 9) 상담을 통해 스스로 점검 및 반성 (교수님들과 소통, 신뢰)
- 10)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 (배추 셀 때나 쓰자)

저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끝이 안보이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해서 헛구역질 하면서 끝까지 펜을 붙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컷+7.67이라는 1차 점수를 받고도 혹시나 뒤집히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힘들었던 지난 날들은 노력했던 과정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디 이 합격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마시고 최종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